

2024
VOL.584

1

낮섬을
설렘으로,
시작의 순간



스포테이너 강한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세상의 모든 시작은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2024 January VOL. 584

- 04 **내일을 열며**
- 가슴 벅찬, 시작의 순간을 위해
- 06 **고용 아카이브**
- 12 **멘토크**
- 이토록 빛나고 이토록 강한
공정 에너지로 나아가는 삶
- 16 **레벨업 스토리**
-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내일
- 20 **슬기로운 회사**
- 한마음으로 비전을 좇으며 발맞추어 동행합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훈련기관,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
- 24 **MOEL +**
- One-Stop!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 26 **MOEL News**
- 30 **잡 큐레이션**
- 잘 듣고 잘 기록하다, '속기사'의 세계
- 34 **취업 시크릿**
- 면접,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 36 **시네마 클래스**
- 일단, 시작하는 거야 <광식이 동생 광태>
- 38 **워커북**
- 메모하는 습관으로 업무 스킬 향상하자!
- 40 **넬툰**
- 42 **고용한입**
- 43 **MOEL letter**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84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시작만큼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시작은 누구나에게나 낯설기도 하지만,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란, 익숙한 길을 떠나 낯선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항상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때로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며, 낯선 감정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낯선 감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일을 할 때의 두려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의 긴장,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 등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안주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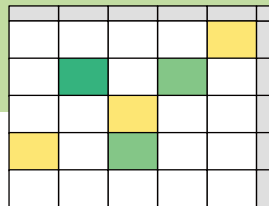


“낮선 길을 걷는 것은 새로움을 발견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설렘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새로운 것을 앞두고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차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죠. 그 설렘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마주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낯섬을 만나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시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 벅찬, 시작의 순간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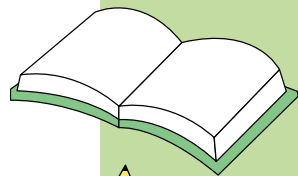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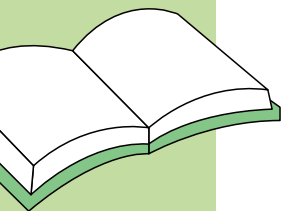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시작

고용노동부가 응원과 지원을 더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할 수 있을지’, ‘지금 선택한 이 것이 맞을지’와 같은 불안을 동반하지요. 우리는 그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이제 시작이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워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시작의 두려움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다’는 불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떤가요? 한 걸음 내디뎠으니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앞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로운 시작에 자신 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키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i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2만여 명을 지원했는데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입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②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가 되면 총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운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일 자리를 통해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❶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또,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i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이지만, 세부사업에 따라 재학생 등 지원대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와 직접 만나고, 진로 설정과 직무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직무 기반의 실천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천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 ① 일경험 홈페이지 (www.work.go.kr/experi) 에서 본인의 취업 진로 계획,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② 운영기관의 기업별·직무별 운영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배정인원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 ③ 선발결과를 확인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하면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필요 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2023년 3월까지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 기술도 익힐 수 있어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I 유형과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층·특정계층: 소득수준 무관)인 II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 유형의 경우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고,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원, 월 4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 경우와 취업 후 장기 근속하면 추가적인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취업 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복지+센터 (www.workplus.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구직자, 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①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을 2023년 3월부터 확대 운영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전공과 무관한 콘텐츠 기획 직무를 희망하거나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탐색(잡케어 활용), 지역 구인현황 및 1:1 맞춤형 이력서 클리닉 제공과 함께 관련 직무훈련 연계 및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내 밀집된 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care)를 통한 직무역량 분석·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운영센터별로 청년·경력보유여성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와 채용 절차에 대한 집중컨설팅과 숨은 채용지원금을 탐색하고 작업환경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구직자 대상으로 홍보하여 목표한 신규인력의 확보를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제공합니다.

이토록 빛나고 이토록 강한
긍정 에너지로 나아가는 삶
스포테이너 강한



운동을 워낙 좋아했던 10살 소년은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년을 눈여겨보았던 육상부 코치 선생님과 의가위바위보에 지고 말아 육상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육상, 카바디, 봅슬레이까지 운동을 넘어 삶을 힘차게 헤쳐 온 前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강한 멘토와의 생생한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 육상과 카바디를 거쳐 봅슬레이 선수로 전향했는데, 많은 종목 중 봅슬레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카바디를 통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카바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고도 운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SNS에서 봅슬레이 선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육상 선수가 봅슬레이로 전향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무작정 강원도청에 찾아가서 봅슬레이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죠. 봅슬레이는 최고 속도 150km/h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아찔한 종목이에요. 처음에는 힘들고 무서웠지만,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스틸감을 즐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했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로 남아 있어요.



Q. 2018년 카바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고 뒤이어 2019년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국가대표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카바디 국가대표로서 그 무게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10회 아시아 남자 카바디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인력 풀이 좁은 카바디에 비해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2018년 3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으로 7월에 국가대표 후보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마침내 2019년 당당하게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봅슬레이로 전향했을 때만 해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기분 좋았습니다.



Q. 지난 10월 은퇴를 선언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운동선수 강han으로서 18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운동이 차지했는데, 그래서인지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아요. '지금 그만뒀도 미련이 안 남겠구나.'



싫어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느꼈던 점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후배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요. 운동선수 생활은 끝났어도 후배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Q.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수많은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빠져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비록 후회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만 하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요. '네 목표를 이루지 못할 거다.', '국가대표가 되지 못할 거다.' 등 남들의 부정적인 말과 시선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꼭 성공한다. 그때 가서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 하게 될 테니까요.



Q. 최근 방송가는 스포테이너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긍정 에너지, 행복의 아이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강한' 제 이름이 나올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밝힌 개인사가 있지만 과거에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주눅이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생을





그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잘 자라왔다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좌우명도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사람이 매사 밝을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 너무 짜증 내고 욕하는 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2018년 ‘다큐에세이 그 사람’에 출연하여 ‘달려라, 한이’라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직접 지었다고요. 현재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웃음) 그때는 제가 무작정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에는 출발점과 결승점이 존재해요. 앞만 보고 뛰고 있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달려라, 한이’였다면 은퇴를 선언한 지금은 반환점을 도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는 ‘완주한, 강한’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완주하는 순간까지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Q. 마지막으로 ‘월간내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새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우선 ‘월간내일’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고 원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좋은 사람을 찾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도움 되는 사람들만 찾고 그 안에 속하지 못하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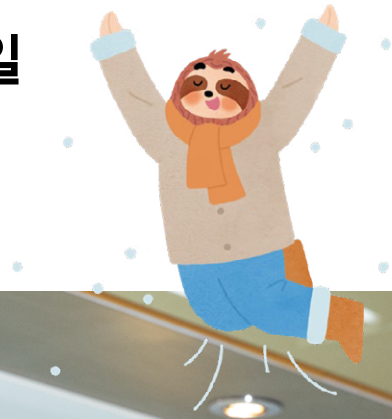
은퇴 후 취미로 즐기는 운동

“
 한때 테니스에 재미를 느껴서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 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골프에 빠져서 오전 시간에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요.
 ”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드는 내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대상' 반정숙



춘천
고용복지센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수많은 구직자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반정숙 책임 상담원이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그녀를 만나 생생한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인생의 2막, 상담원이라는 직업을 만나

반정숙 상담원은 이른 나이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하루빨리 직장에서 일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는 욕망도 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후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든 배움을 시작해야 했던 그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카드 발급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워크넷’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정숙 상담원은 워크넷에서 직업상담사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늘 주변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함께 대화하면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그녀였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 인연이 되어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011년 입사한 그녀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모성보호(출산급여, 육아휴직 등)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맡아 집중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3년 차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녀에게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친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구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취업지원팀에서 집중취업알선 희망자를 연계해 주면 그녀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으로 구직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등 필요한 서류의 보안을 돕거나, 적합한 일자리 공고가 올라왔을 때 즉시 전달해주는 것 역시 반정숙 상담원의 역할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 나온다

반정숙 상담원은 2023년에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맡아서 했고, 시작을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수월했습니다. 당시 만 51세 여성 가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바로 떠올랐고, 그녀의 동의를 받아 진심을 꼭꼭 눌러 담은 사례 수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례 대상자는 고등학생,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이혼과 위암 투병 후 심신이 지쳐있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반정숙 상담원은 그녀와 환상의 팀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확보를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제도를 안내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에 가족수당까지 추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직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치아치료 지원을 위해 끈질긴 검색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의료지원사업을 발견해 소개하고 신청서 제출까지 도왔습니다. 반정숙 상담원이 이끄는 대로 그녀는 묵묵하고 강



인하게 호흡을 맞추며 따라와 주었고 마침내 간 호조무사 취업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내담자에게 상담사는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응원이 사례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전해졌고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끝없는 배움만이 솔루션의 열쇠

그녀는 솔한 노력을 거쳐 유능한 상담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취업 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전문성을 더 기르기 위해 40대 후반의 나이에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고 얼마 전 반가운 합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대한 공부도 필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프로그램개발자, UX·UI디자이너 등 IT직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과 유튜브 영상을





틈틈이 찾아보며 젊은 세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초보 상담원을 거쳐 베테랑 상담원이 되기까지 그녀는 늘 진심으로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반정숙 상담원은 자신만의 상담 노하우로 '편안한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는 하려고 준비해 온 말도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농담과 따뜻한 답변으로 분위기를 최대한 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혼여성에게는 자녀의 소식을 묻거나, 청년층에게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이야기를 꺼내는 등 다양한 소재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약성 민원에 대응하느라 진이 빠지는 날도 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껴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의 복잡한 자격요건과 프로세스를 놓치지 않는 동시에, 구직자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일

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호흡을 맞추고 꿈을 실현하는 성공사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따뜻한 미소로 무한한 응원을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반정숙 상담사가 전하는 응원의 말

- ✔ 저는 업무 스트레스를 클리밍(임벽등반)이라는 운동으로 해소하곤 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운동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풀고,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 희망직무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취업의 뼈대'라는 책을 추천해요. 청년층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무를 살펴볼 수 있고, 성공자들의 스펙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혼자서는 우울함에서 벗어나 어디든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뿐 아니라 상담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아본다면 빛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음으로 비전을 좇으며 발맞추어 동행합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훈련기관,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또한 그 중심에 있는데요. 미래차, 자율주행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를 위한 교육에 노력을 쏟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은 1993년에 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기술을 교육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술교육원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전환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그간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내연기관차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다 미래차에 관련한 새로운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에는 친환경자동차 분해조립, 전기차시스템의 이해, 전동차 제조와 로봇기술 등 총 15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산업전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모든 과정을 실습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교육이 끝난 후 각자의 직장에 돌아가 활용할 수 있게끔 생생한 현장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차량에 사용하는 부품, 엔진 등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의 뚜렷한 지향점이 드러납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준비하며 참고한 설문조사에서는 산업전환에 준비할 계획도, 준비한 것도 없다는 응답자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산업전환이라는 거센 물살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현실인데요. 이때 현대자동차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려는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미래차 기술직무 교육로드맵에 따른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미래차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강의하고 있어요.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산업전환을 계획하는 기업엔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원활한 산업전환 정착을 돕고,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줘요.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와 기업을 다방면으로 살피며 그들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협력사와 함께 혁신을 꿈꾸는 현대자동차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지요.

맞춤형 교육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통신 입문’ 과정의 마지막 수업 현장에는 마치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열정이 가득한 교육생들이 가득했는데요. ‘전기차 통신 입문’은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된 훈련 과정으로 과정 이름 그대로 초심자를 위한 강의예요. 전기차는 기존 차량과 다른 수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통신방식을 사용해요. 전기차 통신의 기초가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통신방식과 개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을 개설했어요. 이렇게 교육생들의 상황과 수요를 교육 과정에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기존 ‘전기차 고전압 취급’ 과정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는 전기차 특성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배터리를 어떻게 취급해



야 하는지 안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자는 의도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및 안전'으로 과정보다 변경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꾸릴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시스템의 이해' 과정의 경우 전기차에 필수로 들어가는 전용 플랫폼을 탐구하는데요. 해당 과정이 생소하고 어려운 교육생들과 심화 내용을 요구하는 교육생들의 피드백에 따라 시스템 실무와 초급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 수강하는 교육생들의 반응이 우선순위,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상생혁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운영에는 역시 협력사와 교육생의 역량 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강이 끝난 후 직장으로 돌아가서 실무에 적용하고 교육을 토대로 산업전환 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것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현대자동차의 체계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현대자동차와 많은 협력사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같은 비전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수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더욱 좋은 품질의 부품을 생산한다면 이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제작하는 현대자동차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테니까요. 한 기업만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부품 협력 등 몇 천 개의 기업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쫓아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함께 혁신을 꿈꾸고 상생하는 현대자동차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Interview



현대자동차 국내생산직무교육팀
맹지현 매니저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국내생산직무교육팀 맹지현 매니저입니다. 현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Q.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2024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교육생들의 피드백에 따라 과정을 다듬어 더욱 세부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협력사 임직원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산업전환을 잘 이끌어나가고 싶습니다.



현대위아 차량부품시작팀
이지호 연구원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위아 차량부품시작팀 이지호 연구원입니다. 자동차 부품 시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로 시장이 전환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 전기차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을 공부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Q. 훈련 과정을 통해 얻은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전기-전자 전공이 아니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았는데, '전기차 통신 입문'을 통해 전기차의 원리를 실습하고 통신 제어와 같이 기초를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대위아 구동시스템설계2팀
안은영 연구원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위아 구동시스템설계2팀 안은영 연구원입니다. 전기차 영역이 커지면서 기존의 기계와 전기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기차 통신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현재 '드라이브 샵프트'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으로 습득한 기술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ne-Stop!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을 위해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국민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복합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시작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울동부지청의 제2센터로서 2021년 6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2개구의 33만 개 사업장과 64만 구민들을 행정 대상으로 일자리 중심의 고용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센터 개소 이전에는 성동·광진구민들이 한강 이북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고용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강 이남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

는데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역 인근에 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알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일자리센터, 복지지원), 동부세일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복지, 주거 상담까지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동·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는 제2센터이기 때문에 업무영역 중 일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 따뜻한 손을 건네는 곳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원들은 구직자들이 불편함 없이 언제든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 위한 시도들도 빛을 발하는 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일자리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고민될 때 등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센터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진심을 담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최적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는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위치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1·2층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대표전화 02-2047-9900



MINI INTERVIEW

성동광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 황경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계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6개월)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계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중입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꼭 힘내셔서 모두가 원하는 취업 이루시길 바랍니다.



1 내일이 보장되는 일자리,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미래보장 #정당한임금 #근로자권리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였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적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보완점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안전인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주년을 맞이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나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안전의식 미성숙 등으로 중대재해 감소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점검한 결과 전체 74개 과제 중 58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11개의 과제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 개정 지연,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이정식 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3 청년과 기업의 동반성장,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실무경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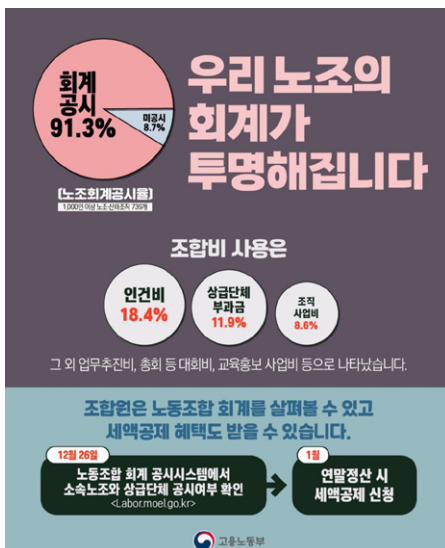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2023년 신설되었어요. 첫해임에도 많은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여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우수 인재를 탐색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해요. 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일경험 사업이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청년과 기업, 운영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1회 「미래내일 일경험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4 노동조합 회계 공시, 더욱 단단한 신뢰 구축!

#노동조합회계공시 #건강한노사관계



12월 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동안 1,000인 이상 노동조합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는데요. 2022년 1년간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를 살펴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5 2024년 넓어지는 취업의 길

#일자리정책포럼 #고용시장개선

고용노동부는 12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정책 포럼」은 고용정책 현안 및 향후 노동시장 이슈 전망, 일자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향 점검 등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취업자가 약 20만 명 늘어날 것이며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디지털·신산업 인력양성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이종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동사다리 강화 등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습니다.

6 함께하는 첫걸음,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보건복지부협력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하고,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약이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

#산업재해예방 #임금체불근절 #산업안전보건

지난 12월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 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며 전년보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의 경우 더 촘촘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우위니아 노·사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대우위니아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 “산업재해뿐만 아니

라 임금체불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관서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용노동정책

#2030자문단청년주도노동개혁 #소통하는정책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지난 12월 15일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년간의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반영 현황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직업계 고교생 지원 필요성

제언을 하여 2024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신설로 이어졌습니다. 고용 2분과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2024년 (가칭)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11.13.)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잘 기록하다
‘속기사’의 세계

Stenographer



회의실, 의회, 법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쏟아져나오는 발언 내용을 타이핑하고 기록하는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글속기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속기사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담다

속기란 화자로부터 발화된 음성 언어를 특정 부호 문자로 변환한 후 다시 문자 언어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방법보다 빠르게 기록할 수 있으며, 말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한글속기는 광복 이후에 다양한 속기 방식이 개발되었고, 1968년에는 국회에 속기사양성소가 설립되는 등 주요한 직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속기는 수필속기, 타자속기, 컴퓨터속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컴퓨터속기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든 있는 속기사의 대체로움

속기사는 법원, 의회, 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외에도 방송국이나 사기업에 고용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직업입니다. 회의나 재판 등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방송국에서 자막방송을 만들고, 프리랜서로서 녹취록, 교육속기, 종교속기, 심포지엄 등 다양한 작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업무특성에 따라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인데요. 자격증 시험에 별도의 자격이 없고, 자격증만 있다

면 오랜 경력이 없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린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데이터 전문 속기사’의 영역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AI(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학습데이터를 양산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직무를 가리킵니다. AI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을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분류, 검수하는 게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동시에 가공하는 일까지 담당합니다. AI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에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속기사의 저력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발화를 정확하게 기록한 ‘속기록’ 역시 추후 무궁무진한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법원과 검찰 등에서 영상녹화제를 실시하면



서 속기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진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AI 음성인식의 기능과 정확성이 고도화되면서 속기사의 미래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속기사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발언을 문자 그대로 기록할 뿐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 발언자의 행동 등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기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기사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AI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AI가 사람 속기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OTT 플랫폼의 자막방송 의무화, 청각장애인 복지 실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속기사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속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속기직공무원 이진경 씨

Q. 속기직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의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의원, 부서장 등)의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속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모니터를 오래 봐서 눈이 건조하거나, 손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때도 많습니다. 새로 속기를 시작하신다면 처음부터 속기하는 자세와 앉아있는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게 필요해요.

Q. 속기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한글속기는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요. 개인 키

속기하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는
바르게!!

이진경 씨



보드를 구매한 후에 온라인 화상강의나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실력이 따라 주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분명히 실력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3급만 있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시험 통과 이후에는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을 하게 됩니다.

Q. 자신만의 속기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속기는 현장에서의 타이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기한 내용을 문어체로 편집하는 '번문'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번문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100% 완벽하게 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일단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쳐야 번문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 분위기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고요.

워라벨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직업!

노혜원 씨





데이터 전문 속기사 노혜원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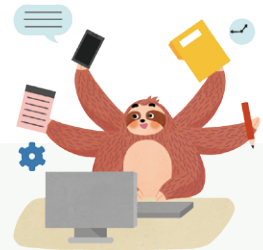
Q. 데이터 전문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인공지능 관련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드라마, 예능, 회의록, 콜센터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음성파일 중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수집, 검수, 분류 및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Q. 속기사가 되는 데 유리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직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필수입니다. 오랜 시간 연습해야 하니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그대로 옮겨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맞춤법 연습에 매진한 것과 시사 및 정치 뉴스를 반복 시청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시속기사협회에서 인터뷰 내용을 제공받았습니다.



★ 직무 사전

★ 직무명 속기사

★ 직무정의

- 속기 문자를 사용하여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받아쓰거나 컴퓨터 속기 기계로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

★ 직무 내용

- 강의나 회의, 국회 및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속기 부호로 받아쓰거나 기록하고, 이를 다시 일반 문자로 번역하여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해서 문서로 작성한다. 이때 기록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 용어는 사전이나 전문 서적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정보

- 사설 학원의 속기사 양성과정을 통해 속기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자격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한글속기 1급~3급이 있다.

★ 관련 홈페이지

-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 대한속기협회 (www.k-steno.com)
- 한국시속기사협회 (www.kcost.org)

면접,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행 면접’ 취업 지원 서비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면접입니다. 면접이란 기업이 최종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직접 인성, 잠재적인 능력, 직업관 등을 평가하여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만으로 알기 힘든 구직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하지만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지원자들은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경험 부족, 자신감 부족, 불안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등 두려움을 겪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심지어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해 면접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접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구직자들에게 ‘동행 면접’ 취업 지원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까요?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행 면접

동행 면접이란 담당 직원이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채용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동행 면접은 취업 지원 서비스 중 가장 적극적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가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촉매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원자는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구직 역량을 단기간에 극대화할 수 있지요. 또한 구인 기업은 담당 직원이 보증하는 구직자를 적합한 인재로 파악하고 채용함으로써 구인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퇴직자까지 다양한 대상자

동행 면접은 면접 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채용 면접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직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 및 장기 취업 준비생, 제대 군인, 경력 단절 여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자, 장애인,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특히 취업 의사는 있으나 구직 기술 능력이 떨어지거나 장기 실직으로 인해 취업 의욕을 잃었을 경우 동행 면접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담당 직원이 면접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면접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직자의 긴장을 덜어주고 구인 기업 인사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직자의 근로 조건을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맡습니다.





i 동행 면접 신청 방법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직접 방문 및 문의
-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구직자) 및 기업 회원(기업) 로그인 후 구직 신청 또는 구인 신청 등록

동행 면접 과정 알아보기

구인 업체 선정	- 지원자에게 적합한 구인 조건을 가진 구인 업체 탐색 및 선정
구인 조건 확인	-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구인 사항 확인(학력, 임금, 근로 시간, 작업 위험도, 구체적인 업무)
구직자 선정	- 구인 사항과 적합한 구직자 검색 및 선정
알선	-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 상호 조건 일치 여부 확인
면접 방법 숙지	-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채용 일정 및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담당 직원이 구직자에게 전달 - 필요에 따라 추가 교육 및 상담 진행
동행 면접	- 구직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 지원(기관에 따라 상이) - 사업장 확인 및 인사 담당자와 면담 진행(구직자의 면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 - 채용 면접 현장에 참여 또는 외부에서 대기
결과 확인	- 채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사후 관리	- 출근 여부 및 직장 적응 확인



후회하면 안 된다는 법 같은 건 없다. 진짜 문제는 후회가 아니라 너무 늦게 알아차려 손 쓸 수도 없게 돼버린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광식이 동생 광태>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외침이다. 후회 없는 삶을 모범적이라 믿고 그 틀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작 시작도 하지 못한 일에 가슴 아파했던 회고담이다.

일단, 시작하는 거야! <광식이 동생 광태>



그녀는 신입생이고 그는 졸업반이다. 마음은 굴뚝같은데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 형 광식. 우물쭈물하다가 세월만 보내버렸다. 반면 동생 광태는 세상 많은 여자와 사귀고 다양한 연애를 즐기는 바람둥이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심리를 모르고 허둥대기는 매한가지. 청춘의 좌충우돌 연애담을 그린 김현석 감독의 <광식이 동생 광태>다. 그러저럭 형제의 연애가 싹을 틔울 때 즈음 운명의 신은 심술을 부린다. 형제를 연애전선에서 완전히 밀어내 버린 것. 광식은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여자가

자기 조수와 결혼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하고, 광태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렸지만 상대는 떠난 후다. 영화의 마지막은 다시는 후회할 짓을 하지 않겠다며 광식이이 새롭게 다짐하는 장면이다. 같은 시각 동생 광태도 거침없는 용기로 헤어진 연인과 재회한다. 즉 홀로 찾은 레스토랑에서 언젠가 본 적 있는 여성과 새로운 연연을 시작하는 광식이와 마라톤을 완주하고는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광태.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과 새 출발을 축복하듯, 밤하늘을 덮은 눈송이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영화는 끝난다.

<광식이 동생 광태>의 미덕은 당대 청춘의 고민과 애환을 빼곡하게 담고도 억지 신파와 감동 없이 소담하고 씩씩하게 풀어간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순하고 착하다. 이유 없이 비틀고 잔 체, 멋있는 척 하느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다가 즐거이조차 잃어버리는 영화와 달리, 적재적소에 깔린 유머와 군더더기 없이 편안한 영상으로 일관한다. 와중에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각오는 결국 해피엔딩을 끌어낸다. 계절과 무관하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끝나는 건 겨울, 새해를 앞둔 밤이다. <광식이 동생 광태>가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 더 없이 좋은 영화인 이유이다. 영화 속 두 형제는 마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을 떠올린다. 살다 보면 신중함이 지나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후회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동안 기회는 멀리 달아나 버리고, 최선의 선택에서 후회만큼 한 결과를 얻기도 한다. 결국 돌아보면 회한 가득한 일들이 상계동 아파트 단지만큼이나 뻑뻑하게 들어차있는 게 인생 아니던가. 그러니 실패와



후회가 두려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면, 흑사라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면, 나를 좋아하는 상대의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전하지 못한 채 몰려선 광식이를 기억하자. 일단 시작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다시 힘을 내서 우선 ‘시작’하는 거다.

개봉 2005

장르 멜로/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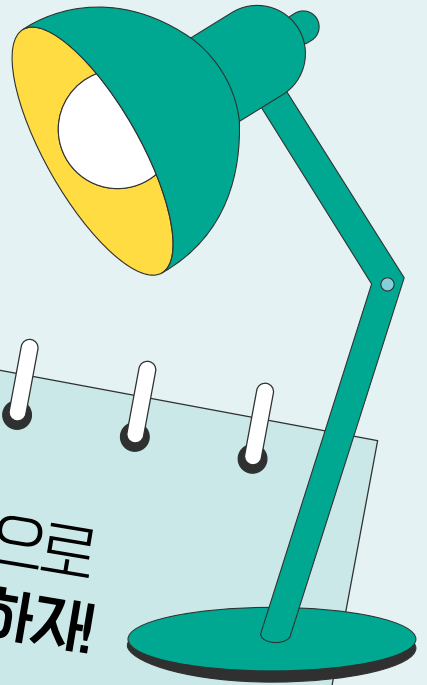
감독 김현석

주역 김주혁(광식 역)

봉태규(광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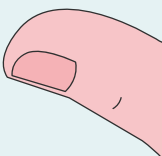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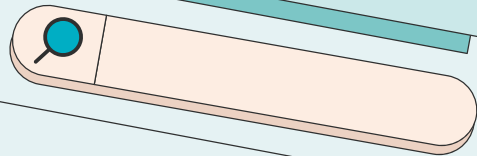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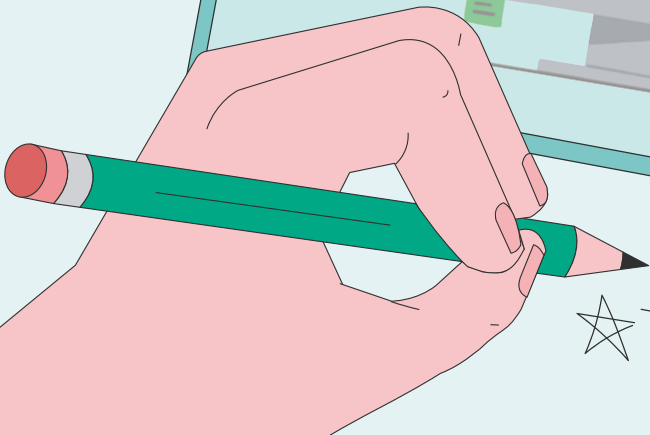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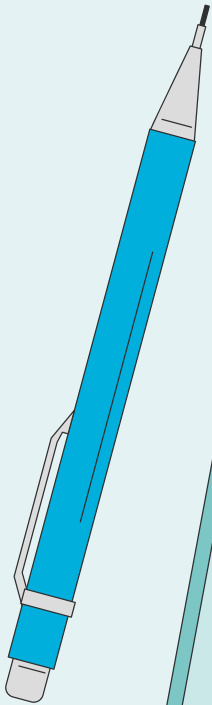
이요원(윤경 역)





메모하는 습관으로 업무 스킬 향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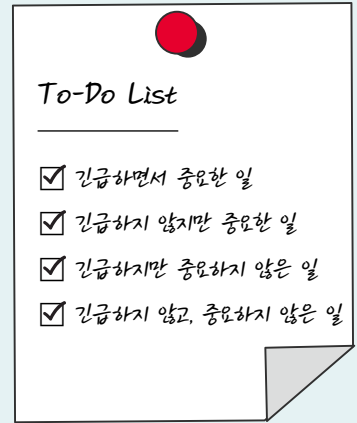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찰나에 스치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습관이 성공의 시작점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상황별로 메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To-Do List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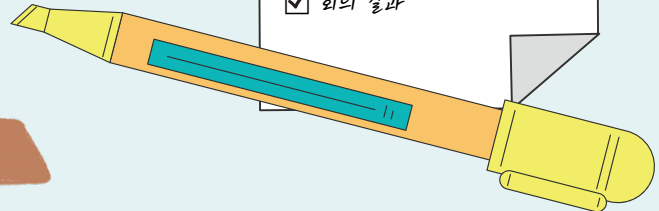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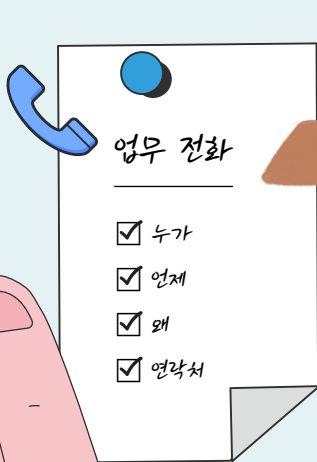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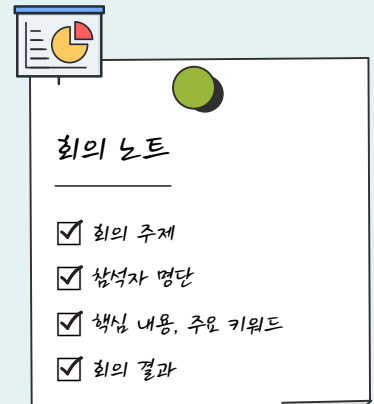
업무 시작 전에 오늘 할 일을 정리하는 To-Do List를 작성하는 것은 업무효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리스트가 있으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일을 마무리했을 때 제대로 완수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To-Do List 작성 시, 현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 시급도, 정기적 업무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으면 업무 파악하기도 쉽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가능해지겠죠? 업무를 해낼 때마다 체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회의 노트 작성하기

회의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앞으로 해야 할 업무라든지, 업무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메모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겠죠? 회의 진행 시 다수의 참석자가 발언하는 만큼 많은 의견이 오가는데 이때, 회의 내용을 전부 메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회의 진행 시 핵심 내용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요약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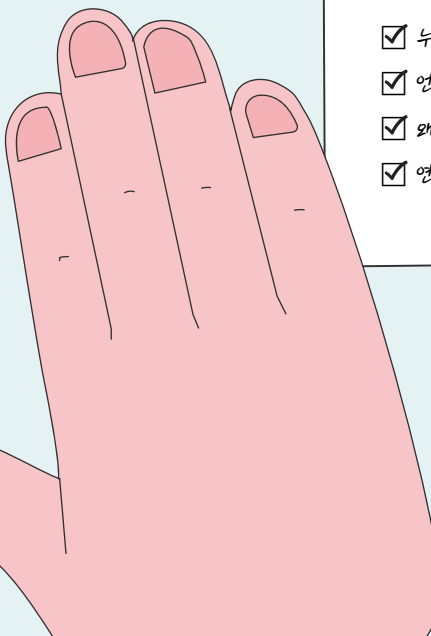


업무 전화 체크하기

업무에서 전화도 중요한데요.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메모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를 먼저 걸 때는 통화 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후 통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이유를 밝히고 메모를 받아놓습니다. 메모를 남길 때는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 용건, 연락처를 작성해둡니다. 메모 후 메모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것이 좋아요.

메모라는 사소하고 평범한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간다면, 여러분의 업무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널툰

글·그림
여혜리

나라는 재료

'나'라는 재료



1



선명하게 표현되는
매끈한 질감의 종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오돌토돌한 질감의 종이

2

인쇄를 하면 종이의 질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걸 알 수 있다.

3



Parrot

오돌토돌한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는
스케치북에 그린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돋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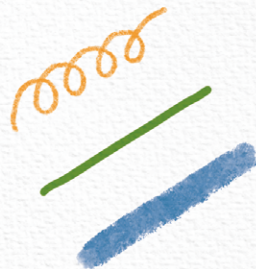


Parrot

4

매끈한 종이는 인쇄했을 때
색감이 더 선명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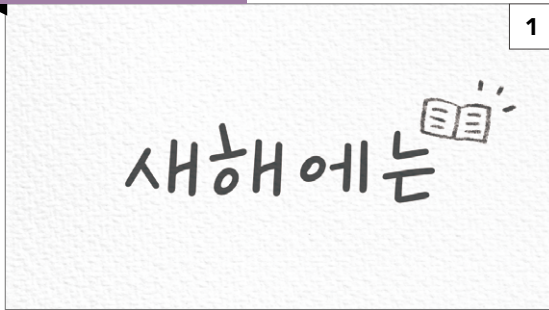
어떤 펜으로 그리아에 따라 발색이 다르고
어떤 종이에 그리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6



나라는 재료를 어떻게 썼을 때 더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선택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을 것처럼 말이다.

새해에는



1



2

새해에는 - 으로 시작하는 다짐.
을 해도 많이 하셨나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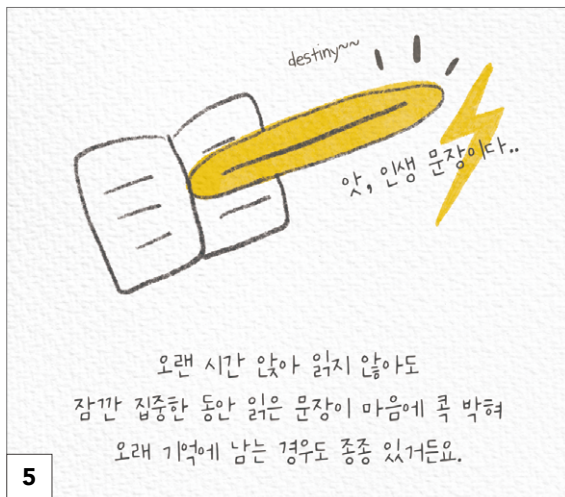


여러가지 목표 중에
올해, 딱 한 가지 확실히 이루보는 거 어대요?

4



해야 된다는 강박으로 스트레스 받기보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목표만 시작해 보는 거예요.



5

오랜 시간 앉아 읽지 않아도
잠깐 집중한 동안 읽은 문장이 마음에 꼭 박혀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6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읽은 책이 한 권씩 쌓여
올해 겨울엔 늘어난 독서량에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달라진 2024년 실업급여, 알아두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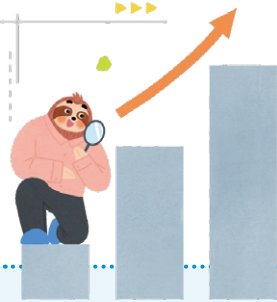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	(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	(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	(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	(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	(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	(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	(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일스타그램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참여방법

-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지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
 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